

/ 발 간 사 /

한국기상학회는 2023년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대기’ 학술지의 2023년 특별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기상학회는 1963년 1월에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그 해 12월에 서울대 문리과대학에서 평의원회를 통하여 학회 선포식을 하게 되었으며, 2023년 현재 개인회원 3,619명의 거대 학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상학회는 1990년 8월 28일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고 기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학술지 발전에 더욱 힘을 쏟게 되었으며, 기상 및 기후 분야의 선도적 학술단체로 재해기상 및 기후변화 관련 국가적 이슈에 학술적 그리고 정책적 공동 대응과 협력방안을 제시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상청을 중심으로 많은 회원들이 수치예보와 관측 연구에 서로 협력한 결과 대한민국 기상 발전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기상청은 독자적으로 수치예보 모형을 만들어 예보에 활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기상학회의 APJAS 학회지가 세계적 대기과학 저널로 인정받고 있으며, 한국기상학회의 회원 증가와 저변활동의 강화는 5개의 세부분과 즉, 기후분과, 대기물리분과, 환경 및 응용기상분과, 대기역학 및 수치모델링분과, 관측 및 예보분과로 나누어 각 분야별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 분과별 활동은 주로 봄 학회에서 이뤄지고 가을 정기학술회의에서는 분과 발표뿐만 아니라 시너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세션을 구성하여 활발한 융합학술활동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번 60주년 특별호에서는 대한민국 기상 발전의 역사뿐만 아니라 분과위원회 별로 학술적 결과를 확인하고 현업에서의 활용 및 응용까지 잘 정리하여 논문으로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기상학회는 지금까지의 기상학 분야의 학문적 성과와 역량을 기반으로 명실공히 국제적인 학회로 성장하여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공동학회 개최와 AOGS(아시아-오세아니아 지구과학회) 등 국제 학술단체에서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회원들은 국제학회에서 회장 등 주요 역할을 맡으며 학술활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60주년 기념 ‘대기’지 특별호를 통해 ‘대기’지가 국내의 기상 역사와 더불어 학문적 성실성과 열정으로 대기과학의 전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학문 활동의 성과와 결과를 학술 분야뿐만 아니라 국내의 여러 유관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제30대 한국기상학회장 하경자